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 6:9-13

2021 년 2 월 28 일

목사님이 교회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배우고 있냐고 물으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은 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아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아이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해롤드이에요. 매 주일 만나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rold be thy name.” 또 한 명이 해롤드의 말을 가로채면서, 말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워드 에요. 매 주일 만나면 함께 이렇게 기도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oward be thy name.” 또 한 명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안하고, 이렇게 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ow’d you know my name.” 하하하. 주님께거 가르치신 기도문을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 기도문은 모두 일곱개의 청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세 청원은 하나님과 관계 된 것이고, 나머지 네 청원은 우리 자신과 관계 된 것입니다. 십계명이 첫번째 4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 6 개 계명이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된 것도 흡사합니다.

첫째 간구: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기도 중에서 우선되어야 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감히 형상을 만들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또, 인간의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야훼가 그래서,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숨을 쉬면서만 발음할 수 있는 단어라고들도 합니다. 야훼나 다른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을 쓸 때에는, 목욕 재계 하고 새 붓으로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성격 기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처럼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엘로힘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고유성과 모든 것 위에 있으신 권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샤이다.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능하게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 장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출 3:14) 하였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조물되지 않은 자, 곧,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된 절대자, 절대 타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 타자이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단절된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자비의 손을 펴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 편에, “여호와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시 23)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 121:4) 노래했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존경과 경외를 드리게 하소서. 공동번역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감각에 잘 맞추어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자로, 주인으로, 받들고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으니, 또,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인생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우, 곧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돌려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드리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 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soli deo gloria)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일은 바로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소리쳐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시 150:1-6)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간의 가장 지고한 영적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 지니라” 하셨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곧 내면을 보십니다. 신실한 마음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전체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어디에서든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레위기 10 장 3 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며, 내 삶의 전부이며,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분이십니까? 그 분과 가까이 마음을 열고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가장 마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하루 순간 순간 그 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실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가 원하는 만큼,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관계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 시작을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속한 가정,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폐하고 황량한 인생 여정이 되겠습니까?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 믿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생 여정 가는 가운데,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기와 물과 태양빛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산천 초목의 아름다움을 보게하시고, 그들과 친구로 살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사는 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감사 중의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분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내어 주시고,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희랍인 조르바라는 소설 아시나요? 조르바는 자유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가 카찬차키스 이지요.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것도 두려워 하지 않고 살아가라”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이 진실하고 아름다워질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난 번에 나눈 통계인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작년 6 월 초,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8 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내놓았다고 합니다. 불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40.9%) 절제하는 (32%), 따뜻한 (27.6%) 등의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천주교인들은, 온화한 (34.1%),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 등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의 경우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같은 (29.1%),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 부패한 (22.1%) 세 종교 중에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고 마태복음 5 장 16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안디옥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혀 준 것입니다. Christians.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된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세상 살이하면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제 이름은 조 건삼인데, 건자 돌림자입니다. 큰 형이 건갑, 작은 형이 건형이지요. 삼자는 제가 셋째라고 삼이라는 이름 주었다고 합니다. 정성스러운 건 자에, 석 삼 자입니다. 참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삼돌이, 삼식이.. 생각나게 하는 삼자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성스러운 건 자에 석 삼자이니, 정성스럽게 여기는 것 3 개를 이루어가는 건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범사에 감사한 삶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하게 하소서.

범사에 은혜 가운데 살아 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